



특허·실용신안 자료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특허검색시스템

대우전자의 팩트롬(PATROM)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요즘 국내에서도 첨단 특허검색시스템이 개발되어 국내기업들의 특허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대우전자는 국내에서 공개되는 방대한 양의 모든 특허 실용신안 자료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한국특허검색시스템 '팩트롬(PATROM)'을 이미 개발하여 지난 2월부터 시판중에 있으며, 현재 일본특허를 한글로 번역한 J-PATROM을 개발하였다.



대우전자가 대우정보시스템과 공동으로 3년간 약 2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에 성공한 팩트롬은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공개, 공고, 상표, 의장, J-PATROM(5종류)를 CD-ROM타이틀로 제작하여 누구나 손쉽게 국내 특허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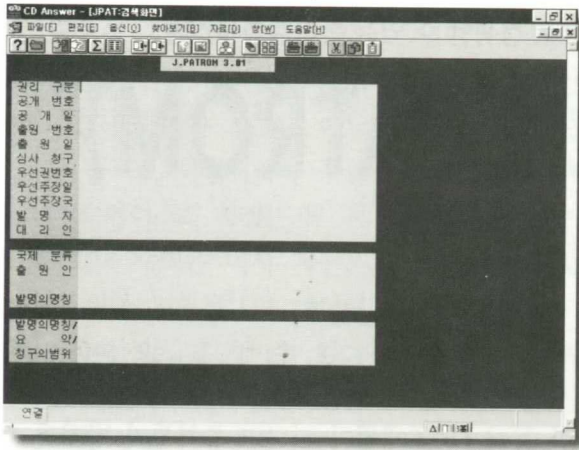
공개공보는 특허청에 출원되는 특허나 실용신

안 등이 1년 6개월이 지나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서지사항과 기술내용을 담아 공개하는 책자로 연간 3백여권(약 4백쪽 분량)이 발행되며 출원건수는 '95년의 경우 75,000건(공개)이었으며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특허검색시스템 팩트롬에는 화학, 기계, 물리, 전기, 전자 등 모든 산업분야의 공개특허와 실용신안을 서지사항인 INDEX CD-ROM과 도면 및 명세서 내용 전체를 볼 수 있는 IMAGE CD-ROM으로 구분, 수록되어 있다.

INDEX CD-ROM은 공개번호를 비롯하여 공개일, IPC분류(기술내용에 따라 분류한 국제 기호), 출원번호, 출원인, 발명명칭(제목 전부 또는 단어 일부), 책자번호, 특실구분(특허 실용신안) 등 8가지 검색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방일치 기능 및 논리결합이 가능하고 키워드로 간편하게 해당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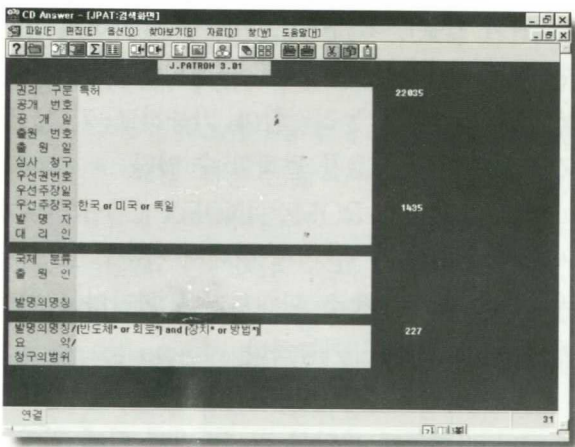
IMAGE CD-ROM은 INDEX CD-ROM에서 검색한 결과를 한 번에 명세서 전문과 도면 등을 원문 그대로 축소 확대하거나 회전하여 열람할 수 있고 인쇄도 가능하다.

이는 자료조사시 별도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간편하게 다양한 검색방법에 의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검색시간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대폭 짧아져 일의 효율성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수백 권의 책자를 단 몇 장의 CD-ROM에 수록함으로써 자료 보관의 어려움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네트워크를 통해 각 연구소 등을 연결함으로써 다자간 동시검색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누락되는 경우 없이 전자 자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검색이 가능하여 조사비용이 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게 되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특허건수는 2천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건수도 1백만건에 육박하여 양적으로는 세계 5위의 특허보유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걸맞는 특허전산망을 갖추지 못해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등 선진국의

특허현황은 해당국가의 CD-ROM을 구입하거나 데이터베이스망(미국의 DIALOG社, 일본의 JAPIO社 등)을 통해 쉽게 열람할 수 있었던 반면에 우리나라의 특허자료는 공보책자를 오랜 시간 직접 뒤져 조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우전자는 사내 특허정보시스템을 구축하던 중에 패트롬을 개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우전자의 이번 국내특허 검색시스템 개발은 낙후된 국내 특허정보관리를 일거에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관련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대우전자는 현재 공개(83~96), 공고(81~96), 상표(81~96), 의장(86~96), J패트롬(93~96)를 판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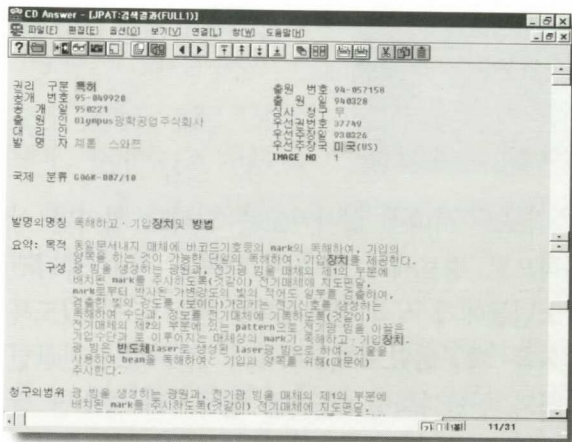
이와 함께 대우전자는 금년 7월까지 '83년 이후 공개된 총 5,000여권에 달하는 책자를 연도별 평균6~7장의 CD-ROM타이틀로 제작해 기업체 등 수요처를 대상으로 판매중에 있습니다. 패트롬의 가격은 1년분에 350만원(INDEX 50만원, IMAGE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특허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1년분이 '83년 4장에서' 94년 9장, '96년 11장(예상) 등 매년 CD-ROM 개수가 늘어나지만 1년분 가격은 2000년까지 동

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대우전자 지적재산부의 이민재 파트롬사업장이 말했다.

한편 대우전자는 지난 2월과 8월에 파트롬에 대한 발표회를 가졌는데, 마지막 질의 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직접 사용해보고 그 성능의 우수성에 놀라는 등 호응이 대단하였다. 이날 발표회에는 약 200개 회사에서 특허관계자와 연구원들이 참석하였다.

의 연구소에서 직접 파트롬의 시연을 한 결과, 50여 연구소에서 설치를 완료했으며 유럽과 미국에 있는 기업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조만간 수출도 예상 된다고 한다.

또한 특허청에도 지난 4월에 한국검색시스템이 기증되어 제품의 우수성이 관공서로부터 입증되어 현재 심사관들이 심사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96서울 국제 데이터베이스 전시회에('96. 8/27~8/30)에 제품을 출시하여 특허관련자 및 방문자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고 신제품으로 J.PATROM(일본공개 특허·실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J.PATROM은 일본어로 자료를 한글로 번역한 자료로서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좋은 검색시스템이 될 것이다. **DC**



특히 전자 전기 화학 제약관련 회사의 연구소가 70%를 차지하였다. 대우전자는 발표회 후 참가하지 못하였으나 소식을 들은 수많은 업체에서 문의가 쇄도하여 대전, 대구, 청주 등 여러 지역

